

[기획]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

일시: 2009년 6월 9일 오전 11시 장소: 광주일보 16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3기 독자위원회 4차 회의가 지난 9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9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본사에서는 김일환 여론매체부장님이 참석했다.

1시간 30분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개월 동안 발행된 본보 지면을 꼼꼼히 분석, 비판하면서 광주일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위원장)

지역이슈 적극 개입

시너지효과 내야



박순형 (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광주일보 즐거운 한자

학생들에 큰 도움될 것



이묘숙 (도스트협회 회장·주부)

피플&라이프

다양한 인물 돋보여



김현석 (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주말판 동호인면에

관련정보 함께 넣어야



임선숙 (변호사·전 광주변호사회 공보이사)

노前대통령 수사보도

언론 깊은 반성해야



/사진=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통에 걸맞게 무게있는 기획기사 늘려야

▲조현중(위원장·국립광주박물관장) =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4~5월이었다. 그 과정에서 광주일보가 지역 선도 언론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제4차 독자위원회를 통해 평가했으면 한다.

▲박순형(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광주일보와 함께 주1회 배달되고 있는 '만화 한국사'를 배우는 즐거움 한자'는 매우 돋보이는 기획으로 평가된다. 청소년들이 한자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화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자공부에 즐거움을 갖게 해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경제 정보를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광주일보가 지난 4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지역명품을 세계명품으로' 기사는 매우 바람직하다. 지역 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기업의 노하우가 타기업들에게도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이묘숙(도스트협회 회장·주부) = 지난 독자위원회에서 광주일보의 방향성에 대해 중도 좌파적이라고 말한 적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전까지 기사를 보면 보수·우익 성향의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노선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5월1일자 3면 '노 전대통령 소환에 따른 지역민의 반응' 기사는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인데 내 주위와 대부분의 시민들은 소환을 이해할 수 없고 계속되는 검찰의 압박에 지친다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일보가 정확한 분석 없이 대세에 묻어가기식 보도에 그친 것 같아 실망스러웠다. 광주일보만의 시각으로 객관성을 띄면서 지역 언론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

같은 날 6면의 '황당한 5·18이런이 체합학습관'은 매우 적절히 지적한 기사라고 본다. 5·18민주화운동은 뜻깊은 일이었지만 체

합 학습관의 프로그램이 적게심과 원한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6면 '피플 앤 라이프'면은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단체나 대학 소식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미담이나 숨겨진 인물의 노력들이 더 많이 소개됐으면 한다.

▲김현석(광주대 일본어과 교수) = 광주유치가 확정된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광주의 국제적 지명도를 높일 매우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경험해본 적이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너무 경사스러운 분위기에만 들떠 있으면 안 된다. 연예인까지 동원된 대규모 축하 공연보다 결과 보고회나 반성의 자리를 가져야 했다. 이런 부분을 광주일보에서는 사실을 통해 적절히 지적했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서는 사실의 논조와 달리 축제 분위기에 젖은 것 같아 안타까웠다. 그에 반해 U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연재 기사는 앞으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

광주일보 주말판중 '동호인'면은 너무 안일하게 지면을 채우는 것 같다. 구경 사진 동호회나 등산 동호회는 어느 단체에나 있는 동호회 아닌가? 특수한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흔한 동호회를 소개에만 그치는 것 같아 지면 낭비라고 본다. 특이한 동호회를 소개하며 관련된 정보 기사를 함께 다뤄 다양하고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한다.

▲임선숙(변호사·전 광주변호사회 공보이사)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 보도행태를 두고 언론의 자성과 책임을 생각했다. 검찰이 발표하면 언론이 받고 또다시 검찰이 되받아 사건을 확대 재생산했다. 결국 최초의 피의사실 보다 다른 방향으로 사건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광주일보도 마찬가지였다. 무

분별한 폭로전으로 이어진 이번 사태에서 중앙언론의 주장을 그대로 함께 하면서 광주일보만의 시각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정확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를 합부로 하지 못하게 광주일보 등 언론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6월8일자 1면에 '광주시장·도지사 선호도 여론조사' 기사가 크게 게재됐다.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 모르겠다'였지만 10%대에 불과한 지지도를 얻은 몇몇의 후보 중심으로 기사방향이 흘러갔다.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게 기사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조현중 = 맞는 말씀이다. 이 같은 여론조사에서 선호도를 묻는 항목전에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단체장' 등 시민들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 싶다.

▲이묘숙 = 4월20일자 창사 특집 '광주·전남 뉴파워 57인'은 과연 누가 어떻게 선정했나? 선정배경이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선정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구실수에 오르지 않는다. 내년에도 또다시 선정하려면 광주·전남 시민이 뽑은 뉴파워가 돼야 객관적일 것 같다.

▲조현중 =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큰 이슈는 4대강 개발과 도청보존·철거문제다. 어떤 문제든 부정과 긍정 양면이 있다. 4대강 개발도 추진될 일이라면 지역이나 광주·전남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에 적극 개입, 긍정적 효과를 배가할 필요가 있다.

도청 문제가 마찬가지다. 광주일보가 선도적인 위치에서 이끌고 가야 한다. 과거 광주일보가 가졌던 무게나 깊이가 이제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언론의 경향을 엿보고 함께 가는 경향이 있다. 깊이 있는 기획취재로 광주일보만의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

Large advertisement for '한빛고시학원' (Hanbit Gosi Academy) featuring a public exam preparation seminar on June 27th. The ad includes details about the seminar's content, such as '79급 공무원 합격설명회' (79th Grade Civil Service Exam Preparation Seminar),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academy.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임부동산' (Daedong Sangnim Real Estate). It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It offers consulting services for property transactions and provides information on current market trends and property valu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Certified Real Estate Agent). It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번영공인중개사' (Byeong Certified Real Estate Agent). It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완지구' (Suwan-gu) area. It highlights the location's proximity to '수완 롯데마트' (Suwan Lotte Mart) and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E+ Certified Real Estate Agent). It lists several properties for sale, including houses and commercial build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size, and price.